



철새도래지 조류독감 방역 다른 지방 양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17일 제주시 구좌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포커스 제주교육의원 제도 폐지 입법 추진 논란

자기 결정권 침해 등 ‘갑론을박’

“공정회 등 공론화 없어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과거 여러차례 토론·여론조사 통해 의견 수렴”

제주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란이 제주도민 자기 결정권 침해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공론화 과정 없이 법안이 발의돼 도민 자기 결정권이 훼손됐다는 지적과 과거부터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차례 있어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해식 의원 “송재호 의원과 미리 협의”=제주교육의원 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서울 강동구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다. 제주특별법이 제주에 한정된 특례와 규제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개정안을 타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 국회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송재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해식 의원은 송 의원과 미리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

혔다. 이 의원은 ‘송 의원이 제주교육의원 폐지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송 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했다”며 “송 의원과 가깝게 지내며 (송 의원로부터) 제주도 상황에 대해 많이 듣고 있었고, 또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특위의 간사와 제주·세종 특위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제주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를 통합하도록 돼있는데 제주만 교육의원을 존치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선거를 앞두고 일반 제주도의원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교육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과

한 해석”이라며 “선거구 획정을 기화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자기 결정권 훼손 vs 이미 도민사회 합의=교육의원 존폐 논쟁은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이해 관계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하나 선포하지 못하고 해묵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그만큼 민감한 현안이지만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선 도민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공론화 절차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이해 당사자인 제주교육의원은 이번 법안을 밀실 입법으로 규정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정정책센터장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묻는 여론 조사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며 “현행제도의 폐해가 분명하고, 입법 권한이 국회의원과 교육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도민 사회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공정회도 없이 갑자기 법

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를 받는 상황”이라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을 향한 비판도 있다. 송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선이 아니다”며 “이번 발의 과정은 자기 결정권 강화를 외쳤던 송 의원의 행보와 어긋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송 의원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토론회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며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고 보고 법안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공동 발의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법안은 행안위에서 다뤄진다”라며 “행안위 소속인 이해식 의원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제주도민 숙원 제2공항 추진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제주도를 세계 최고의 관광허브로 발전시키겠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15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16일 한라일보와 서면으로 진행한 대선주자 인터뷰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사업 적극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안 후보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관광조세를 벤치마킹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 상하수도과 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과 현대화, 관광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

은 육지와 안정적 교통편 확충을 위해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효과 5조 2646억원, 부가 가치유발 효과 2조 3846억원, 취업 유발 효과 5만441명으로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제주자치도 완성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전국 형평성 등의 논리로 무늬만 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며 “연방제 분권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부미현기자

해녀어업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도, 해녀어업 유·무형 가치 활용 신소득원 발굴

연안식생 복원 등에도 역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해녀들의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과 제주해녀어업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해녀어업의 유·무형 가치를 활용한 신 소득원 발굴·창출을 위해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을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소라가격 안정화를 통한 해녀어업 소득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소라관측 및 소비촉진,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소득 향상 지원, 해녀콘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공동 발의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법안은 행안위에서 다뤄진다”라며 “행안위 소속인 이해식 의원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별(연안)식생 복원, 탄소중립 어업장비 설치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2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어촌활성화를 위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을 올해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도시민 어촌유지 지원, 청년어업인 영여정착 등 5개 사업에 7억원, 어업인 의식개선과 역량강화 등 4개 사업에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 비대면 수산물 유통 등 17개 사업에 114억원,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연안바다목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대로그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2
17일 <17시 기준> 누적 4899

영당이 시킨 겨울~

제주 시민만을 위한 노비타비데로 겨울나기

2022. 01. 18 ~ 02. 28

코로나 상생지원금
타나는 전 사용가능

주 소 : 제주시 연삼로 17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novita
A KOHLER COMPANY

특별 할인혜택

1년치 필터(2개)

무료 설치

에코백 증정

닥터클린 10%할인

3년 무상 AS

01

7만원 할인

BD-AFE50N

#생활 방식 #어린이 기능
#자동노즐 세척

~~299,000원~~ 229,000원

감력 방수

02

7만원 할인

BD-CD51N

#방수등급 IPX5 #자동노즐세척
#원적외선 건조

~~309,000원~~ 239,000원

BEST

03

4만원 할인

BD-H700HO

#매일자동살균!
#손 대기 삶은 도기까지 살균!
#방수등급 IPX7 #원적외선 건조
#3WAY, 3D노즐 #3분 케어

~~399,000원~~ 359,000원

닥터클린 서비스 할인 접수 방법

노비타 홈페이지(www.novita.co.kr) > 제품 등록 > 쿠폰 발급

※ 홈페이지에서만 혜택 적용 가능 (유선, 방문 신청 시 적용 불가)